

CHUN SUNG GILL Solo Exhibition

POP THE BALLOON

KIMREEAA GALLERY Chungdam

19-20 Chungdamdong Gangnamgu Seoul, Korea
T. 02 517 7713/ F. 02 517 5250

POP THE BALLOON

ARTIST: Chun Sung Gill 천성길

TITLE: POP THE BALLOON

DATE: 2014. 6. 12 (Thu) – 7. 8 (Tue)

(Tongui_6. 17 (Tue) – 7. 8 (Tue))

VENUE: KIMREEAA GALLERY (청담/ 통의)

EXHIBITION OPENING: 2014. 6.12 Thu 6pm (청담점)

INQUIRY: 청담 (T_ 517-7713)

통의 (T_ 736-7713)

KIMREEAA GALLERY
space majoongmoo

김리아 청담동

19-20 Chungdamdong Gangnamgu Seoul, Korea T. 02 517 7713/ F. 02 517 5250

OPENING HOURS Monday - Friday 10AM-7PM | Saturday 10AM-6PM

김리아 통의동

35-97 Tonguidong Jongnogu Seoul, Korea T. 02 736 7713/ F. 02 736 7716

OPENING HOURS Tuesday - Friday 10AM-7PM | Saturday 10AM-6PM | Sunday 1PM-6PM



기린풍선_ Synthetic resins, Urethane Painting_17x6.5x3.5cm_2014

INSTALLATION VIEW



2014 ARTSHOW BUSAN INSTALLATION

LOVE LETTER_ F.R.P, Urethane Painting, Acrylic_17x6.5x3.5cm_2014 (each)

천성길 작가의 조각 설치 개인전이 2014년 6월 12일부터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.

<POP THE BALLOON>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개인전은 작가가 2009년부터 지속해온 '구겨 넣기 작업'의 새로운 시도입니다. 작가는 광고에서 흔히 보이던 북극곰이 코카콜라 병 안에 구겨져 있고, 젓소가 서울 우유갑 안에 들어가 있으며, LOVE라는 알파벳이 하트 안에 구겨져 숨겨 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. 이를 통해 대중에게 상징화 되어버린 이미지들을 본질을 가리는 '보이지 않는 벽'으로 정의하고, 벗어날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표현해왔습니다.

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물을 풍선이라는 연약한 매체 안에 가둡니다. 집안 장식장 안 어딘가에 있을 듯한 코끼리와 말 인형이 풍선 안에 가두어지고 하트도 풍선 안에 팽팽하게 가두어져 공간에 떠 있습니다. 풍선의 탄성이 형태를 추상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, 그 물리적 긴장감이 그대로 조각된 작품은 금방이라도 터져 속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. 이전의 작업이 수동적으로 가두어진 현상이라면 이번 개인전의 작업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전, 그 찰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. 작품 위에 채색된 색은 작가 본인이 직접 조색한 고유의 색으로 어느 색상표에서도 찾을 수 없고, 매번 갈을 수 없는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. 대중매체에 의해 개인의 감정도 분류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반복될 수 없는 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

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해학적으로, 때로는 매우 사랑스럽게 포장한 천성길 작가의 작품으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해 즐겁게 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.